십자가와 제자훈련(IV), 어떻게 지키게 하나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십자가와 제자훈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매듭지으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말씀도 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만큼이나 오해가 깊이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교육이 목숨을 걸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교육의 존재의 의미를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과 연관 지어서 우리는 때때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성문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유대인의 교육이야기를 연상하기도 하고 또 랍비들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고 우리들의 제자를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바라보는 그 뜻의 말씀이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모자라서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 더 강화된 율법을 가져다 얹어 놓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면 지옥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성경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하십니

다.

마음 심리상태를 행위와 똑같이 여겨 버리십니다. 지금 행위도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또 뭐라 하시냐면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지상명령을 마지막으로 마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못해서 인류가 망하게 된 판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행위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된다고 믿는 상태를 말해요. 율법행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신약성경을 해석할 때 계속해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명령형의 말씀이. 말씀을 지키라, 분부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지키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다고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쳐 갖고는 아예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가 뭐예요? 예수님의 분부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부만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낱낱이 하면 이 지구 위에 - 물론 그 때는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에 쓴 것이어서 부피가 컸지만 아무리 그래도 - 지구 위에 두기도 모자랄 것이라고 강조법을 써서 얘기할 정도로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기억이나 할 것이며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것이며, 무슨 수로 그것을 지켜나갑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가던 주제들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주제에 누구를 또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천만 원으로 3년 동안에 5억 벌기 이런 원칙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도 율법인 것 아십니까? '아침형 인간', '오분

내에 설득하는 법' 이런 게 다 율법인 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도 꼭 주님께서 분부하신 게 아니라도 율법에 의존하는 율법을 지키려는 죄적 성향들이 다 있어요. 죄적 성향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몸에 묶여 있지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몸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뭔가 성공하는 원칙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을 행동을 함을 통하여-묶여있는 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몸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문젠데 마음이 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마음이 땅에 내려와서 몸에 묶여있으면서 그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의를 구하고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 지구 위에 다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님의 말씀들을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면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28장에 제자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자, 너희의 제자들의 삶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지켜지는 결과 지켜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열매가 나타나려면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받는 길로 인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율법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지 않은 것들, 내 삶에서 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그때그때 성령을 통하여 알아서 준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너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라는 얘기와 내용이 같이 일치한다는 얘깁니다.

이걸 무턱대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이 지켜지는 결과를 직접 자아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수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훈련과 교육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 적용을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Education 아닙니까? ‘ed’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얘깁니다. ‘out of’ 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 ‘ducation'은 라틴어의 ‘두끄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리드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원래 교육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게 기독교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밖에 주어진 말대로 그 원칙의 틀대로 우리의 행동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의 삶의 모습을 열매로 따야 되는데 그렇게 열매로 따기 위해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향하여 가도록 가르치지 말고 나무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나무라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분부는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던지게 되리라, 이러한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을 성령을 받음이 없이 그대로 다 지켰다, 예를 들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공자도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공자님께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열매를 맺었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들을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다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아버지와 독립된 인격으로써 아버지께서 내 던지신, 앞에 제시하신 말씀을 지켜 나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의심에 찬 질문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주님이 직접 행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주님은 곳곳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합의 상태가 언제 인간에게 전가됩니까? 이 연합이 인간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성령이 오시는 그 날,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연합의 일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된

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제 삼중연합 얘기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 삼의 연합 이야기를 제일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제 삼의 연합을 이루도록 도우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제 삼의 연합이 뭐라고요? 제 일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연합입니다. 제 이의 연합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제 삼의 연합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이 제 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과의 학생회 일을 할 때였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학교에서는 개학을 하게 되면 봄과 가을에 부흥사경회를 먼저 하고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을사경회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봄에 미리 가을의 강사를 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당시 소망교회의 담임으로 계시던 곽선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예수소망교회에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 설교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당시에 나왔던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 설교집도 한권 선물로 주시면서 혹시 가을사경회를 통해서 특별히 뭔가 추구하는 주제 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을 목사님 앞에 제시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경회를 진행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왜 그 주제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아마 스무 번 가량 읽으면서 불경의 금강경과 비교하면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러한 신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은 잘은 몰라도 그대로 인정이 가지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해탈과는 도대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속을 비워서 공으로 놓자고 하는 건데…

그런 질문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런 제시를 했는데 곽 목사님께서 그 주제보다는 요한복음 20장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대화를 한 뒤에 주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의 띠를 띠우고 끌고 가리라'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요한을 발견하고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하고 물어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자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달가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로 뛰어넘는 과정에서 막히고 있다고 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십자가사건이 성령강림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자기 사건으로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변화를 간과하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연합의 사건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막 혼합이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했다가 어떨 때는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했다가... 왜 이렇게 구분 없이 분명히 발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학생시절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제자로 시작한다, 전부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발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데모가 많고 이럴 때입니다. 그 때 곽선희 목사님의 뜻은 물론 제가 알지요. '주변이 혼란스럽고 전두환 대통령이 못마땅하더라도 신학생의 과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뜻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말씀을 연합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는 시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연합의 상태를 예언하고 계신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상은 예수 선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완성하겠다고 쫓아가는 이 형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분명히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던 시절과 구분해서 참된 기독교인 됨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제 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을 사도바울의 얘기를 빌면 갈라디아서가 큰 도움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주목할 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

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는 이유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며 지키시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이제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데 난 지금 이게 무척 궁금하다.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가 왜 흔들리고 있느냐 라는 것이고 2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답은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 훈련되고 습득된 제자의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얘기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재현해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천년 전의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눈앞에 밝히 보이게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놓이게 될 때에 믿음은 뭡니까? 듣고 믿음으로니까 믿음은 '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 됨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1연합 우리의 의식작용, 믿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식 속에 밝히 보이면서 '아,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이 하나의 생각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뭘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밝히 십자가 사건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님과의 제 삼의 연합이 완성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가슴이 찔려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먼 데 있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라는 게 뭐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몸에 묶여 있구나, 그러므로 마음이 하늘로 향해야 되겠구나!', 향할 수는 없어요. 단지 마음이 방향을 돌이키려고 소원하는 거지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게 세례지요. 그렇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고 동일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눈처럼 희어 집니다. 어떤 죄라도.

그렇게 눈처럼 희어 져서 마음이 성결하게 될 때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사도바울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못 받으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의 밝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밝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몸에 묶여 있으면서 몸은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사업의 위기상황이 눈과 귀와 코와 입 피부 감각을 통하여 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이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떱니다. 이 때 십자가는 안 보여요.
내 몸을 통하여 자식의 일이 눈으로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들 때 이때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밝히 안 보여요.

십자가를 밝히 안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 몸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강단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이 희귀해 지는 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목회현장이 몸을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아무개 장로님이 보이고 교회건축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본다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봐야 밝히 보이는데 십자가를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있지요. 왜 먼저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면, 내 사업이 망할 때 사업에 들이 총자산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얼마로 칠까요? 한 백억이라고 쳐 봅시다. 사업에 백억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다 날라 가게 생겼습니다. 그 일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건,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사건입니까? 어느 게 내가 더 주목을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사건입니까?

이 우주의 물질을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과 예수님

을 바꾸시겠습니까? 우주 목성 화성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돈으로 환산한 값보다 예수님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 같은 무지렁이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업이 백억이 날라 가는 일보다도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으로 내 눈앞에 재현되고 있을 때 오늘 이 시각에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될 때에 그 사건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식이 낭패를 당한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건이 현재화 될 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자식 손 붙잡고 사자 밥이 되어 순교하는 거예요. 내 손 잡고 있는 자식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더 시급하니까. 내 자식이 사자 밥이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니까.
그게 덜 시급하고 내 자식이 사자 밥 될까봐 이 일이 더 급한 일이면 절대 순교 못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급한 일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다급하게 내가 마음을 다 드려서 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다고 하면, 그 사실에 마음을 다 해서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위기가 밝히 보여서는 안돼요. 자식의 문제가 밝히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악화된다고 해도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에 밝히 보여서 건강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보다도 더 급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무지렁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밝히 보이면 정말 저절로 그 사건이 나의 것으로 동일시됩니다. 이렇게 동일시되면 죄 사함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몸을 통해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주셔서 하늘을 느끼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이 임한 자에게만 제 삼의 연합, 모든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주님의 액션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 삼의 연합이 있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이제 제 삼의 연합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쉬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배불러서 이 땅을 향해서는 도대체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내 속을 채우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서 '요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이 요렇게 좀 바뀌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액션을 취해나가시는 제 삼의 연합의 단계가 아닌 겁니다.

제1연합과 제2연합을 통하여 완전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만큼 하늘로 기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군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 제 2사단 내에 있었어요. 부관중대에 근무를 했는데,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었지요. 3주 만에 한 번씩 외출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삶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던 양식이 좀 물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혹시라도 냉면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식당에 가서 양식을 먹게 됩니다. 양식은 잘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습관처럼 먹고 나면 냉면 생각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냉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배고픔이 있을 때 냉면 생각도 나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을 때. 그래서 양식을 먹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죽게 되잖아요? 내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건 내가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듯이 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식사로 배불리려는, 땅의 식사가 뭐예요?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배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이런 것처럼.
땅 식으로 배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제1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천국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천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미군부대 들어간 카투사가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냉면이 먹고 싶다, 돈이 먹고 싶다, 건강이 먹고 싶고 자식의 대학입학이 먹고 싶다. 그런 게 소원이 된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이 땅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천국으로만 배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 먹고 싶어도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돈 먹고 싶은데 할 수 없지, 하나님 먹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식문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식문제로 배부르고 싶을 때, '할 수 없지 자식에 대해 죽었는데 뭐, 이제는 이 배고픔을 천국의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먹어야지'
천국의 식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활동의 장소로 삼으셔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관찰하세요. 보세요.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나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끊임없이 바라보고만 있으면 된다 이거에요.

수없이 많은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밝히 보면, 자꾸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을 헤치고 밝히 보기만 하면 제1의 연합, 제2의 연합, 제3의 연합이 일어나면서 삼박자 축복이 내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 하나, '밝히 보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의 훈련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재현시켜 주는 것이고 재현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자 되었던 신분, 나를 완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복지의 삶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제자훈련 이 네 번에 걸쳐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제자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앞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를 삼아 또한 제자의 단계를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며 교육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